

# 프로야구 막바지 가을 티켓 전쟁

## NC 다이노스 정규리그 2위 확정 향한 매직 넘버 '2' 4위 자리 놓고 LG와 KIA 치열한 순위 싸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정규리그 2위 확정을 향한 매직 넘버를 '2'로 줄였다. NC는 지난주(20~25일) 6경기에서 4승1무1패(승률 0.800)의 호성적을 거뒀다. NC의 시즌 성적은 77승8무53패로 3위 넥센 히어로즈(74승1무63패)와 승차를 6.5개 임까지 벌렸다. 정규리그 11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NC는 27일과 28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정규리그 2위 확정과 플레이오프(PO) 직행을 확정짓는다. NC의 지난주 평균 자책점은 2.73으로 SK 와이번스(2.41), LG 트윈스(2.7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팀 타율은 0.246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타선의 힘은 부족했지만 WHIP(이닝당출루허용률) 부문에서는 리그 2위(1.16)를 기록했다. 볼펜의 힘이 컸다. 배재환이 2경기에서 1승 홀드세이브를 올리며 마운드를 지켜냈고 임창민(2홀드), 원종현(1홀드세이브), 김진성(1홀드), 이민호(1홀드세이브)가 버텼다. 특히 이민호는 일주일 동안 4경기에서 등

판해 6이닝 5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으로 활약했다. 다만 잠잠한 타선이 고민거리다. 4번 타자 에릭 테임즈의 성적이 불쑥날썩하다. 테임즈는 최근 10경기에서 40타수 8안타(1홈런), 0.200 타율에 그치고 있다. 나성범도 최근 10경기에서 40타수 10안타(0.250)로 주춤하고 박석민은 최근 10경기 25타수 2안타(1홈런)로 타율이 0.080에 불과하다. 이제 NC는 삼성전을 마치면 한화이글스(1경기), 롯데 자이언츠(2경기), 넥센(2경기), SK(1경기), kt 위즈(2경기)와 차례대로 만난다. 두산 베어스(90승1무47패)는 지난 22일 kt를 꺾고 1995년 이후 21년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두산은 1989년 단일시즌제(1982~1988년 전후기 및 1999~2000년 양대리그 제외)가 도입된 이후 1995년에 이어 통산 두 번째로 정규시즌 패권을 가져갔다. 두산의 전신 OB 베어스가 원년인 1982년 전기리그에서 정상에 선 바 있다.

두산은 지난주 3경기에서 2승1패(승률 0.667)를 기록했다. 두산은 이제 남은 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면 2000년 현대 유니콘스가 세운 한 시즌 최다승(91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두산은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넥센은 지난주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넥센은 4경기에서 전패를 하며 좀처럼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규리그 홈경기를 마친 넥센은 잔여 경기 일정이 모두 원정이다. 올 시즌 유독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28일 현재 넥센의 원정 성적은 30승1무33패로 채 5할이 되지 않는다. 마운드에선 앤디 밴헤켄(6승2패)이 분전했지만 에이스 신재영(14승7패)과 맥그레거(6승3패)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신재영은 지난 21일 광주 KIA전에서 5이닝 동안 7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무사사구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의 멍에를 썼다. 신재영은 지난 1일 고척 SK전에서 14승을 올린 후 한달 가까이 승리를 맞보지 못하고 있다. 넥센은 두산(29일·잠실), 한화(10월2

일·대전), NC(10월4~5일·마산), 롯데(10월7~8일·사직)와 만나면 정규시즌 144경기를 마친다. 가을야구를 향한 중위권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위 자리를 놓고 LG(68승2무67패)와 KIA(67승1무70패)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LG는 지난주 3경기에서 1승1무1패(승률 0.500), KIA는 4경기에서 2승2패(승률 0.500)를 거뒀다. LG가 KIA에 2경기 앞서 있다. 남은 경기수는 LG가 7경기로 KIA보다 1경기 더 많다. KIA는 최종 성적에서 무조건 LG보다 1승을 더 많이 해야 4위가 될 수 있다. 두팀은 27일 광주에서 운명의 맞대결을 펼친다. LG가 남은 경기에서 승률 5할을 유지한다면 4위 자리는 확정적이다. 반면 6위 SK(66승74패)의 가을 야구는 희망해졌다. 5위 KIA와의 승차는 25경기다. 최근 9연패에 빠진 것이 뼈아왔다. SK가 연패에 빠진 사이 4~5위권 팀들이 치고나갔다. SK의 가을야구는 사실상 희망하다. KIA가 잔여 6경기에서 3승을 거두면 SK의 포스트시즌은 물거품이 된다. /김민근기자

## 문체부, '스포츠 비리 사례집'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스포츠 4대약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담은 '스포츠 비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문체부가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분석해 비리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했다. 스포츠 4대약인 조직 사유화(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 사례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 수단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 책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고된 총 580건의 스포츠 비리 가운데 대표적인 비리 50여 건을 일러스트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 스포츠 4대 약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직 사유화 비리가 20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승부조작이 70건(12%), (성)폭력이 23건(4%), 입시비리 16건(2.8%)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비리 중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중 236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변천교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김시우, PGA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톱10'

## 한국 선수 최초 신인왕 도전

김시우(21·CJ대한통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톱10'에 오르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투어 신인왕에 도전한다. 김시우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 70·7385야드)에서 열린 투어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신인왕 경쟁을 벌이는 에밀리아노 그리요(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최종 합계 2언더파 278타를 기록 공동 10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2오버파 공동 20위에 머물렀던 김시우는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며 순위를 끌어 올렸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김시우는 2차전과 3차전에서 모두 2위권에 진입한 후 최종전에서는 10위에 오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시우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으로 PGA 투어 신인왕 획득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 선수가 PGA 투어에서 신인왕

을 차지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 김시우와 함께 신인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요는 이번 대회에서 공동 10위에 오르며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그리요는 올 시즌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재미동포 케빈 나를 꺾고 우승하며 돌풍을 예고했다. 이후 우승은 없었지만 톱10에 3차례 올랐다. 지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공동 8위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김시는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그리요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 달까지만해도 신인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해 신인왕 레이스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초 신인 자격을 획득한 김시우는 시즌 막판 눈부신 활약으로 신인왕 경쟁에서 단 한번에 그리요의 최대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김시우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가까스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뒤 두 대회 연속 2위권을 차지했다. 최종전에서는 뒷심을 발휘하며 톱10에 성공해 강한 인상을 심었다. 페덱스컵 랭킹을 17위까지 끌어 올린 김시우는 지난해까지 20위권 밖에 머물렀던 세계랭킹도 50위권(55위)까



김시우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열린 투어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2언더파 278타를 기록 공동 10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85야드)에서 열린 투어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2언더파 278타를 기록 공동 10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시즌 상금 308만6369 달러를 모아 그리요(337만705달러)와 비슷하다. 올 시즌 톱10을 차지한 횟수는 김시우(5회)가 그리요(3회)에 앞섰다. PGA가 최근 발표한 신인왕 랭킹에서 /김민근기자

## 김신욱, 1년3개월 만에 슈틸리케호 재승선

울리 슈틸리케(62) 감독의 선택은 김신욱(전북)이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28일 오전 10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카타르 이란과의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3·4차전에 출전할 23명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달 중국 시리아와의 1·2차전에서 23명이 아닌 20명 엔트리로 나섰다가 실패한 슈틸리케 감독은 23명 엔트리를 모두 채웠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김신욱이다. 최전방 요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슈틸리케 감독은 장신 공격수 김신욱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신욱이 대표팀에 합류한 것은 2015년 7월 동아시아컵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전북 이적 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던 김신욱은 지난 21일 제주 유니시티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김신욱과 함께 김보경(전북)도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측면 수비수 홍철(수원)과 베테랑 수비수 곽태휘(서울), 골키퍼 권순태(전북) 등도 모처럼 기회를 잡았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토트넘)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등 유럽파들은 모두 승선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1·2차전 대비 8명의 새 얼굴을 발탁했다. 수비수 김영권(광주)과 에버그라테(과) 골키퍼 정성룡(가)와 사기 프론탈레, 공격수 황의조(성남) 등 6명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은 내달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카타르를 상대하고 곧장 이란으로 이동해 11일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이란과 4차전을 갖는다.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조 상위 2위 이내에 오르기 위해선 최소 1승1무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란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선수단은 내달 3일 오후 4시 수원 리미디호텔로 소집된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